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3]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 미술관은 최근 전시회 횟수도 줄고 관람객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1: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A]

위원 2: 미술관을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시가 없는 기간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3: 주변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전시료와 관람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 2: 다른 전시관보다 전시료와 관람료를 대폭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전시회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요?

위원 2: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원 1: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B]

사회자: 그럼 제안해 주신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C]

위원 3: 저도 미술관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넓고 쾌적한 미술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1: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모두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료와 관람료를 낮추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D]

위원 3: 저는 ○○ 문화 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사업의 취지가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 단체나 시설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잘 준비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그게 좋겠네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전시료 인하로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릴 수 있으며, 관람료도 인하되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E]

위원 1: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해 주

신 내용을 토대로 ○○ 문화 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 미술관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시료와 관람료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1.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미술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위원 1'이 제시한 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 ④ [D]: '위원 2'와 '위원 3'이 제시한 방안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 ⑤ [E]: '위원 3'이 제안한 방안의 시행으로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토의의 진행 순서를 바꾸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② ㉠은 토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③ ㉠은 토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④ ㉠은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이다.
- ⑤ ㉠은 토의 참여자에게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다.

3. 다음은 미술관 측에서 ○○ 문화 재단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이다. ㉠~㉣ 중 위 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안	△△ 미술관의 예산 지원 요청
제안 이유	△△ 미술관은 최근 관람객이 크게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귀 재단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귀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시 외곽에 제2 미술관 건립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강좌 개설 ㉡ ㉢. 청소년을 위한 미술 대회 개최 ㉢ ㉣. 전시료와 관람료 인하 ㉣
기대 효과	㉠. 전시회 개최 횟수의 증가 ㉠ ㉡. 관람객의 증가 ㉢.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생 에너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모습을 촬영해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미생물들이 더러운 폐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바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전기도 생산하면서 폐수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대부분 유기성 폐수를 이용합니다. 환경 공학 용어 사전에 보니까 ‘유기성 폐수’란 다양한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흡수하고 분해할 때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것보다 약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 연료 전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통의 가운데에는 이온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고, 왼쪽에는 산화 전극, 오른쪽에는 환원 전극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화 전극 쪽에 폐수를 넣으면 폐수 속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연구해 온 ○○○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수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생물 연료 전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사전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③ 대상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대상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⑤ 대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

- 가까운 시기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발표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성 방법 :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짐. ㉠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상용화 전망 :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임. ㉡

○ 발표를 들은 후에 든 생각

- 발표에 활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찾아보아야겠다. ㉢
-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삼아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작성해야겠다. ㉣
- 축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것을 글을 읽어 알고 있는데, 미생물 연료 전지와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

- ① ㉠으로 보아,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으로 보아,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으로 보아,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발표를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으로 보아, 들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하려 하고 있군.
- ⑤ ㉤으로 보아, 들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글을 써 주십시오.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과 피해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피해를 입는 원인을 밝혀야겠어. ㉡
- 청소년의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 제시해야겠어. ㉢
- 청소년의 안전한 전자 상거래 결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 방안을 학교와 개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어. ㉤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이 입는 전자 상거래 피해는 물질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인증 절차나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 성인에 비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현금으로 전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절차나 방법, 물품 배송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상당수 청소년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 판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것,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받는 것, 물품을 제때에 배송 받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피해 신고 방법이나 보상 절차를 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소비자 보호 정책, 관련 법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개개인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거래 약관,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에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B]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가), (나)를 모두 활용하여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전자 상거래 사기 피해 발생 품목 순위

순위	품목
1위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2위	공연 입장권 및 상품권
3위	의류 및 액세서리
4위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나) 청소년이 이용한 전자 상거래 주요 품목(복수 응답)

전자 상거래 품목	응답 비율
의류 및 액세서리	52 %
도서	33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21 %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14 %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 ②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 ③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전자 상거래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인다.
- ④ 전자 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덧붙인다.
- ⑤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주요 이용 품목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B]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것.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에는 청소년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청소년부터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불공정한 전자 상거래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④ 청소년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⑤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9~10] 다음은 학생이 쓴 수행 평가의 후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행 평가 결과를 보니 나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 결과에 놀라 최하 점수를 받은 까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표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행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남의 생각을 ㉠ 결코 자신의 생각인 양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셨다.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표절하는 것을 반복하면, 잘못된 글쓰기 태도뿐만 아니라 왜곡된 윤리 의식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셨다. ㉡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서나 독후감을 작성할 때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㉔ 짜집기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왔던 나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비윤리적으로 글을 썼던 것의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쓰기 윤리에 대한 나의 단일한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㉕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의 생각을 나의 생각인 양 표현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쓰기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9. 윗글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절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조사하여 글의 내용으로 생성하였다.
- ②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자신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③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습관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 ④ 쓰기 윤리 준수와 관련한 개인적 깨달음을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글을 계획하였다.
- ⑤ 쓰기 윤리를 소재로 하여 표절의 개념, 실태, 문제점, 해결 정책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10. ㉑~㉕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치'로 대체한다.
- ② ㉒: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③ ㉓: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출처를'을 첨가한다.
- ④ ㉔: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짜집기'로 수정한다.
- ⑤ ㉕: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의 ㉐, ㉑가 사용된 예를 ㉑~㉕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선생님: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㉑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㉑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㉒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㉓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㉔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㉕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㉑

- ① ㉑, ㉒
- ② ㉑, ㉓
- ③ ㉒, ㉔
- ④ ㉑, ㉒, ㉓
- ⑤ ㉒, ㉓, ㉔

12. <보기>의 ㉑~㉕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㉑ <u>살았다</u> .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㉒ <u>살았다</u>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㉓ <u>살았다</u> .
놀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㉔ <u>놓았다</u> .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㉕ <u>놓았다</u> .

- ① ㉑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 ② ㉒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③ ㉓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㉔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⑤ ㉕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체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체 「의존 명사」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ㅈ 「접사」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 ② 나는 앓은 체로 잠이 들었다.
- ③ 그녀는 혼자 푹푹한 체를 한다.
-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채로 잡았다.
- ⑤ 꿈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체를 했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을/-을’,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ㅓ’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ㅓ’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먹-	머거	먹-	먹어
③	씩오-	씩와	깨우-	깨워
④	쓰-	뵈	쓰-	써
⑤	ㅓ득ㅎ-	ㅓ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솔 님디 아니 ㅎ고 녀르메 서늘흔 디 가디 아니 ㅎ며 ㅎ릭 발 두 호브로써 죽을 땡골오 소곰과 ㄴ뵈물 ㅎ 먹디 아니 ㅎ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홑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조 ㅓ릭와 파과 마늘과 부척와 기름과 땃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ㄴ뵈물과 들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ㅎ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솔’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ㅎ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ㅓ’가 ‘-ㅓ’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ㄴ뵈물’과 (나)의 ‘ㄴ뵈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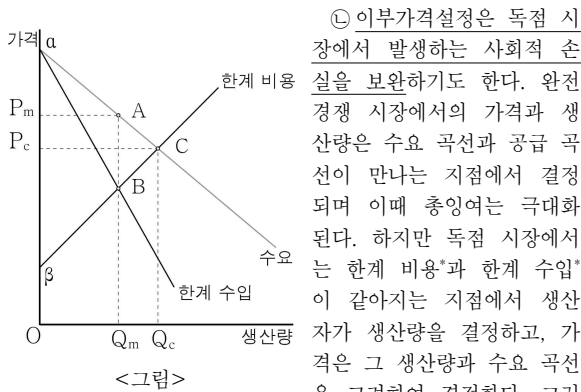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다리꼴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B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AB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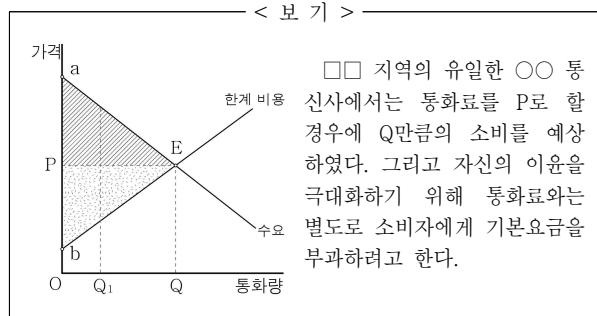
16.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부가격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17.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② ○○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다리꼴 $OP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 에 해당할 것이다.

19.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20.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감정하면 ② 배정하면 ③ 시정하면
- ④ 책정하면 ⑤ 제정하면

[21 ~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느다
최령(最靈)은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끈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호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귀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귀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츠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넌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딴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은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직립불의: 꼴뚜기 섬.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탁연직립: 빼어나 끈게 섬.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굴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
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먹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
하다. 웃거리를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
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던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
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흙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
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
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
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
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
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
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
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
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
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찾중 하나, 술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
가 트고, 금간 데마다 베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
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
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는 것
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
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
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
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
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젖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
히 **대해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
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
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
(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
있다. 「서장(書狀)」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체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
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
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
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
업적이어서는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래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한다.

- 이태준, 「고완」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도일: 세월을 보냄.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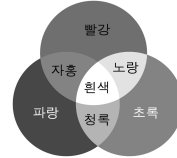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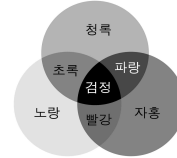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찰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4 ~ 2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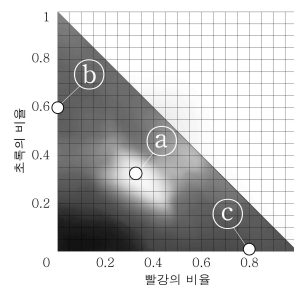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 ~ 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 ~ 700nm대의 빨강(R), 500 ~ 600nm대의 초록(G), 400 ~ 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료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가법 혼합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의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은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S(색) = rR + gG +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 g, b의 합은 1이 되며, r, g, 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그림 3>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㉔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㉔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감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에 닿게 하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색료의 3 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자홍 필터는 초록, 청록 필터는 빨강,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화가가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감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 빛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㉕<인상: 해돋이>에서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㉖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시냐크는 그의 대표작인 ㉗<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의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다.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출하는 광량이 많을수록 높음.
*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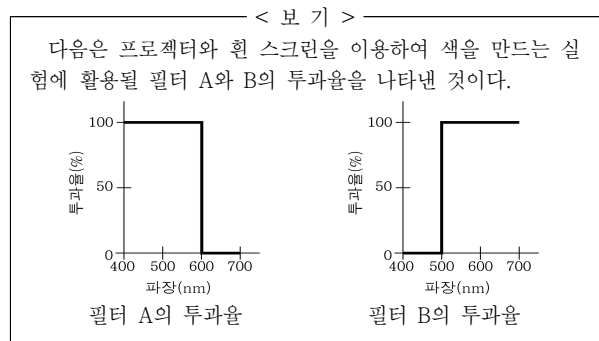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 유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각각 세 번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 ③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 흰색인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 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필터 B에 투과시키면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두 필터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
-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가 더 낮다.

27. 밑글의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r, g, b는 ㉠에서 모두 0의 값을 나타낸다.
- ② ㉠과 ㉡를 혼합하면 ㉢보다 채도가 높아진다.
- ③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 ④ ㉠과 ㉢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색 삼각형으로 그 혼합 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과 만나는 지점에는 자홍이 위치한다.

28. 밑글의 ㉠,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려 했다. 고흐는 이를 위해 물감을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원색과 중간색만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인 ㉢ <아들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는 이런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홍빛 테라스의 대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순간적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① ㉠과 ㉡는 모두,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채도가 높아 보이겠군.
- ② ㉠과 ㉡는 모두,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물감의 혼합으로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겠군.
- ③ ㉠과 ㉡는 모두,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겠군.
- ④ ㉠과 달리, ㉡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겠군.
- ⑤ ㉠과 달리, ㉡는 대상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겠군.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② ㉡: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③ ㉢: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④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⑤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30 ~ 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갔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서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서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너 줄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

이었고 그리움이였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㉔ 별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리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도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㉕ 현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명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축수를 다시 갈아 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파리 속에 뭉텅이로 간혀 있던 종이 뭉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3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 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32.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㉒: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㉓: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㉔: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㉕: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33~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부당한 논증과 <어떤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타당한 논증이 주어졌을 때,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삼단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가령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에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은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

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33.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34.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35. ㉠와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3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

[37~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전 소설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奇異性)'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기이성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현실성이다. 비현실성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이나 사건의 극적인 전개도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전 소설에서는 아름다움, 추함, 선함, 악함, 효심, 충성심 등과 같은 인물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위험에서 평온으로 등과 같이 사건의 전개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국정취 등도 기이성 형성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성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비현실성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던 17세기의

소설에서는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국문 소설과 전기 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가 현실계나 환상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전기 소설의 하나인 「금령전」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경험 세계인 현실계와 초경험 세계인 환상계가 개별적인 독립성과 함께 상호 유기성을 갖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성의 근거를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비현실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적강형 영웅 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 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홍부전」, 「심청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

차설. 해룡이 변씨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金鈴)*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바라보이며,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털 돋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고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라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아홉 머리 가진 것이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낙담하며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촌철(寸鐵)이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 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니, ‘남전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기기를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동중에 주궁패궐*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비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 써어 있었다.

(중략)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일신을 뒤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였다. 해룡이 하수하고자* 하나 손에 촌철이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칠보 홍균을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달려들어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 터럭 돋친 암태지이거늘, 가슴을 해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계집이 다 요괴로 변하여 사람을 죽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끓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요괴가 아니요. 사람으로서 요괴에게 잡혀 와 욕을 참고 사환하였나이다. 아까 칼 갖다 주던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가 슬픈 기색으로 나와 사레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낭을 피시고 후원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이 요괴에게 잡혀 와 시녀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욕을 참고 살았었습니다.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보고 죽게 되니 다시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풀을 낚아 가지고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금령전」 -

*금명: 금방울.

*주공패월: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민 궁궐.

*하수하고자: 손을 대어 죽이고자.

(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심 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B]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 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니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 속에 어리어 등당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 십만 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서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빠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 효녀 심 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하고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등당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꺾이히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 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 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중략)

하루는 천자께서 당나라의 옛일을 본받아 공녀에게 명하시어 화청지에 목욕하시고 친히 달을 따라 화단을 배회하시는데, 밝은 달은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지고 무슨 소리 나는 듯했다. 천자께서 몸을 숨겨 가만히 살펴보니 ㉡ 예쁜 용녀가 얼굴을 반만 들어 꽃봉 밖으로 반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취 있음을 보고 도로 해치고 들어갔다. 천자께서 보시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하시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무리 서 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을 가만히 벌리고 보시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 반기며 물으시기를,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나?”

미인이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여쭙기를,

“소녀는 남해 용궁 시녀이온데 소저를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뵈오니 극히 황궁하옵니다.”

하니 천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상제께옵서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정하라.’ 결심하시어 혼인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사관으로 하여금 날을 잡으라 하니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소저를 황후로 봉하여 승상의 집으로 모신 뒤에 혼인날이 당하매 명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예의범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라.”

하시니 ㉢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요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3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소리계 소설에는 민중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전기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 ③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은 이원적인 세계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 ④ 기이성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고전 소설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 ⑤ 합리적 사고의 성장은 고전 소설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약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8. '기이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금령이 굴러서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해룡이 요귀를 무찌르고 위협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이 구현된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심 소저와 용궁 시녀가 함께 꽃봉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겠군.
- ④ (다)에서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의 비현실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은 이국정취가 인물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국정취를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군.

39. ㉠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은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뱃터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⑤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에서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40.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이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게 하고, [B]는 인물이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게 한다.
- ② [A]는 인물이 환상계로 가도록 이끌고, [B]는 인물이 현실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A]는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고, [B]는 인물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A]는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고, [B]는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할 근거를 제공한다.
- ⑤ [A]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는 인물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41.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귀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귀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이 설화는 우리의 고전 소설에서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여 주는데, '금령전'도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나)와 이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 (나)에서는 _____

- ①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유지되었습니다.
- ② 남주인공을 배신하여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④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 ⑤ 남주인공이 요귀를 찾아가게 된 동기가 공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적대적인 대상이 출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② ㉡ : 갑자기 변화된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공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 외부 영향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을 묘사하여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버개 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찢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군세계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छ고 쓸쓸함이 몽당뱃자루 같은 날
 운암담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때**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छ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
 는데

[A]

[B]

물가의 진창에도 폭폭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얇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C]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43.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4.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 ⑤ ‘여기 하나의 군세계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4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때’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